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

박 서 정(성균관대 박사) · 김 순 옥(성균관대 교수)

부모 특히 직접적 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아동의 정서조절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전략과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개념의 정의와 측정방법을 차별화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과 정서조절 능력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매개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과 어머니 607쌍이며, 자료분석은 빈도,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 Cronbach's α , 표준 중다회귀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로부터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받은 아동은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을,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받은 아동은 공격적 전략과 소극·회피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둘째, 어머니로부터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받은 아동은 적응적 정서조절이 잘 이루어진 반면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받은 아동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하였다. 단순히 부모의 행동변인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던 기존연구와 달리 정서조절 능력과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개념정의와 측정에 있어서의 뚜렷한 차별화, 아동이 어떠한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함께 이루어진 점 등은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셋째,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공격적인 전략을 덜 사용하는 아동일수록 적응적 정서조절을 하며, 공격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일수록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소극적 전략은 적응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는 전략이 소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때로는 원만한 또래관계에 기여하므로 아동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전략이 반드시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매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아동의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적응적 정서조절간의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으며, 아동의 공격적 전략 역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부모의 행동변인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사이에서 정서조절 전략을 매개로 하는 매개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